

무도 연애 상담소

- 박명수

무한도전의 다행 포지션을 맡고 있다. 어떻게보면 박명수의 포지션 변천사에서 세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 2007년까지는 다른 멤버들의 실력이 상대적으로 떨리고 대부분을 유재석&박명수 콤비로 이끌었을 때니 악마의 아들, 비난 개그 등으로 주로 공격적인 역할을 맡았지만, 2008년부터 노홍철의 말문이 트이며 웃음 지분을 가져가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정형돈, 정준하, 제대 이후 하하, 파업 이후 길까지 말문이 트였고 역으로 본인은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리자 오히려 나이가 많다는 점과 외모 등의 허점을 드러내며 멤버들의 공격을 유도하고, 그 공격을 막깔나게 받아내어 멤버들에게는 자신감을 키워주고 시청자들에게는 웃음을 유발했다. 정말 당하는데는 1타인 정준하와 이전부터 당하는 캐릭터가 있던 유재석에 묻혀있는 장점. 특히 정준하는 박명수와 정 반대로 당하는데 특화되어 있으나 먼저 일침을 날려서 웃기는 능력도 상당하기에 둘이 시비가 불으면 무조건 웃음 성공이다.

유재석처럼 직접적으로 멤버들을 쟁기거나 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는 큰형님. 다른 건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웃음소재를 만들어 내는 능력 하나는 무한도전에서 탑을 달린다. 본인이 뺄짓을 해서 개그 소재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뛰어나고, 또 다른 멤버의 뺄짓에 일침을 가하는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무도 내에서의 웃음 지분은 상당한 편이다. 유재석이 개그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주 역할이 진행이고 구축하고 있는 캐릭터상 박명수만큼 개그상황을 만들기가 힘들다. 굳이 비교하자면 유재석이 진행부터 개그까지 능수능란한 올라운더라면, 박명수는 다른 부분은 전부 폭망이지만 개그만을 최대치로 올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개그 소재를 만들더라도, 본인이 그것을 수습하는 능력은 부족하기에 초창기에는 일을 벌려놓고 '여기까지입니다'하는 수를 많이 써먹었다. 때문에 연계가 잘 되는 유재석이나 노홍철이 같이 있다면 시너지가 뛰어난 편이다. 종종 변칙적인 꼼수를 시전해서 멤버들을 당황하게 하면서도 의외로 시청자들에게 비난은 받지 않는 편인데, 박명수의 그것은 종종 비판받고는 하는 하하의 그것과는 달리 밸런스나 룰 등을 봉괴시키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아슬아슬한 선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주로 악마, 악마의 아들 등 악역을 도맡아하면서 못된 짓, 못된 개그를 많이 하지만 악역으로는 욕을 거의 먹지 않는 신비로운 스킬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정말 못됐다기보단 심술 부리는 것에 가깝고 못된 짓을 하는 만큼 골탕먹거나 당할 때는 정준하 그 이상으로 시원하게 당하거나 자멸하여 큰 웃음을 선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그리고 2005~2018, 무한도전 13년을 돌아보면 박명수가 보이는 모습이 딱히 악역이라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이는 노홍철과도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이 노홍철은 스스로 정도를 지킬 줄 아는 반면, 박명수의 경우 더더욱 의외라면 의외겠지만 동행하는 제작진과의 소통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추격전 촬영 등을 보면 "이렇게 할거다." 라며 독백을 하는 경우는 많아도 박명수만큼 카메라, 즉 제작진 측을 향해 "이러면 안 되나?", "어떻게 하지?" 등의 질문을 던지는 멤버도 없다. 즉 이런 식의 대화를 통해 제작진 역시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변칙적인 플레이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단점도 많았다. 나름 2인자 포지션임에도 그놈의 진행능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박명수가 중심이 되면 그 팀은 망하곤 했다.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난게 알래스카 팀과 번지점프 팀. 이 때문에 종종 '박명수가 중심이 되면 망한다!'라는 식의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예: 김성원 작가가 박명수를 논할 때) 이 때마다 명수가 방어용으로 내세우는 논리가 있는데 보통은 "(자기를 제외한 다른 진행자) 때문이야!"이지만 종종 "내가 반장할 때 시청률 30% 나왔어요!"도 내세우는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건 박명수 덕이 아니고 우선 당시 경쟁 프로그램들이 하나같이 시원찮았던 점이 크게 작용했으며, 더불어 무한도전이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던 시기 + 바로 직후 당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드라마 <이산>과 콜라보레이션을 했기에 생긴 결과물일 뿐이다. 실제로 먼 훗날 진행한 선택 2014 특집에서는 이제 다들 박명수의 능력을 알아서 가장 처참한 지지도를 기록하였다. 이 외에도 박명수가 중심이 된 특집들 중 상당수가 평가가 좋지 못했던 것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웃기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거의 강박에 가까운 집념이 있는지라 역으로 방송 내용에 몰입하는 정도는 멤버들 중 가장 떨어지는 면이 있다. '이렇게 하면 재밌는 장면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정말 지독하리만큼 달려들어 끝내 웃음을 뽑아내는 긍정적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단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돈가방 특집이었다. 반대로 웃기는 장면을 만드는 데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촬영의 흐름을 끊거나 특집 의도와는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을 단적으로 드러낸 게 바로 네 멋대로 해라 편에서 유재석의 박명수 따라하기였다. 매번 그런 흐름 끊기나 딴짓에 당하고 그거 수습하느라 바빴던 유재석이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고 결국 유재석 따라하기를 했던 정형돈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는 식의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 목숨 걸고 도망치는 와중에 뜯금없이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좀비 특집이 대표적이며, 면접의 신 특집에서도 실제 면접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보일 수 없는,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

이렇게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 박명수는 무한도전 내에서도 가장 기복이 큰 캐릭터였는데, 단순히 그날 개그감 같은 게 아니라 체력이나 방송 집중도 등 전체적으로 기복이 심하다. 못할 때는 분량이 확 적어지거나 다른 멤버들에게 핀잔을 듣기도 하지만, 그 파멸적으로 높은 고점 때문에 무한도전의 그 수많은 레전드들 중에서도 손에 꼽는 레전드 장면들의 주역은 거의 박명수. 이는 재미가 있는 없든 자기 위주로 상황극이나 분량이 짜여지면 한없이 텐션이 올라가는 단순무구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서 기인하는데, 다른 멤버들은 오히려 포커스가 맞춰지면 흥이 나는 듯 하다가 주저하거나 민망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박명수는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된다 싶으면 텐션이 마구 올라 무리수에 가까운 개드립과 독설을 마구마구 내뱉는다. 사실 박명수를 근본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는 분량 욕심이다. 물론 멤버들 중 누가 분량에 욕심 없겠냐만은, 박명수는 이게 엄청난 관계로 텐션의 기복이 매우 심했던 케이스. 무도 초기부터 박명수는 자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돌리려고 무근본 드립까지 동원하는 특성이 있다. 관찰력이 좋아서 복불 재능이 뛰어난 유재석이 이러한 박명수를 흉내내다가 [모든 미디어가 나예요](#) 맘을 탄생시켰다.

공식적인 무한도전 내 별명부자. 별명이 심히 많은데 활용도 잘 된다. 이를테면 '거성'이란 별명이 한동안 쓰이다가 잊혀지더니 타인의 삶 특집에서 의사가 된 그에게 '[하얀거성](#)'이라는 별명으로 주어지는 경우나, 김연아 특집 당시 얻은 '하찮은'이란 별명에서 파생되어 나온 '삼찮은', '하스찮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처음에는 부업으로 치킨집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박사장'으로 불렸으며 '무한소년체전 특집'에서 [거성\(巨星\)](#)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후 선생님 특집에서 자기를 대놓고 거성이라 칭하면서 거성이란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한동안 거성([巨星](#))으로 불리다가 [김연아](#) 특집에서 '귀하신 몸' 김연아와 비교해 '하찮은 몸'이라 불리면서^[22] 이제는 '하찮은', '찮은이형'이란 별명으로 자주 불리며, 늙어보이는 외모에서 비롯된 '아버지'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주로 이 아버지라는 별명은 촬영 도중 가발이나 모자가 벗겨졌을 때 늘려있던 머리가 형클어진 모습에서 나온 캐릭터로, 이 상황이 되면 멤버들이 '아이고 아버지' 하며 박명수의 앞에 엎드려 그의 다리를 잡고 우는 상황극에서 쓰이곤 한다. '악마의 아들'이란 별명도 존재. 이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악마가 된 그의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는 장면이 방송을 타기도 했다. 이 별명은 박명수 본인이 자기 입으로 "나는 악마의 아들이야!" 라 외쳐서 생긴 것이다.

- **2인자, 짐오, 세미프로 :** 무한도전 내 유재석 바로 다음이라고 주장하는 2인자, 1.5인자 포지션을 맡고 있다. 실제로 진행 시 유재석 바로 옆의 명당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유재석을 대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촌데레](#). 1인자를 견제하는 면과 재석바라기스러운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고, 유재석을 제일 많이 까고 다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옹호하고 지지해준다. 평상시엔 "언젠간 내가 너 넘어선다." 라고 디스를 걸다가도 다른 멤버들이 잔소리가 심하다 등으로 유재석을 깨면 백이면 백, 불같이 화를 내며 바로 월드쳐준다. 특히 정준하의 경우 "니가 잘못해놓고 왜 얘한테 난리야!! 얘가 뭔 잘못을 했다고!!" 식으로 쉴드를 치며 동시에 발길질을 가해준다. 평상시에도 멤버 중 재석과 가장 친하다고 하며, 재석만 쟁겨주거나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 멤버들이 왜 유재석만 쟁기냐고 항의하면 얘가 살아야 우리 모두가 다 산다 드립으로 일축시킨다. 니가 가라 하와이 특집에서는 유재석이 탄 택시를 집요하게 추격하다 카페에 들어가선 탁자로 몰아놓고 못 도망가게 불잡아두는 집념을 보이다 유재석이 정준하를 호출하자 정말 진심으로 섭섭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나머지 둘이 당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멤버들도 쟁겨주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 **8집가수 :** 나름대로 8집까지 낸 가수지만 노래를 못불러서 놀림받기도 한다. 예능을 위해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로 못 부른다. 가수로써의 [흑역사](#)는 일명 오동도 사태라고도 일컫는, 2002년 8월 오동도에서 열린 컴백무대. 이 때 '바람의 아들'을 불렀는데, 생목 뼈사리를 2번이나 냈다. '나름 가수다'에서 하하가 부를 명수의 추천곡을 뽑을 때 역시 나왔는데 '바람아 더욱 더 세차게 내게 불어라' 중 내게 불어라에서 음이탈을 했다. 소녀시대 특집에서 공개된 것은 '가련다 모든 걸 다 잊고 나는 가련다' 중 나는 가련다에서 제대로 음이탈. 이 덕분에 소녀들의 비웃음을 산건 당연지사. 소녀시대 출연 여성시대 특집과 나름 가수다 특집 1편서 공개된 영상은

모두 한무대에서 터진 음이탈이었다. 당시 PD가 급히 풀샷 처리후 계속 풀샷만 나왔다고 한다. 이때문에 그 PD와의 인연이 끊겼다나 뭐라나. 당연히 박명수 입장에선 숨기고 싶은 흑역사로 오동도 사태가 언급만 되면 매우 민망해한다. 해당 부분 음정은 2옥타브 솔#(G#4)으로 상당히 높은 음정인데¹⁹ 솔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이 무슨 깡으로 이 노래를 라이브 하겠다고 했는지는 영원한 미스터리.

- 사실 낸 앨범이래봐야 그래봐야 죄다 행사 레파토리 땀뻘용으로 만든 음반이다보니 죄다 오토툤 같은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목소리지만 덕분에 박명수와 작업하는 프로듀서는 속편하다는 말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가수들은 제대로 될 때까지 본인 스스로 또는 프로듀서들의 지시로 반복하며 다듬는데, 박명수는 해도 해도 안돼서 그냥 오토툤으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잦기 때문. 이는 빅뱅의 하루하루 패러디 뮤비에 쓸 노래를 녹음할 때도 드러났다. 휘성이 수십번을 지도하고 심지어 재석이 명수 파트를 부르며 모범 답안을 보여줘도 못해서 결국 휘성이 "됐습니다, 기계로 만질게요."라며 포기했다.
- 그와 별개로 괜히 8집 가수는 아닌지 나름대로 음악 감각은 있어서, 가요제 특집때 곡을 만들 때에도 그냥 막연하게 어떠한 스타일을 하고싶다 라고만 얘기하는 다른 멤버들과 달리 기본적인 틀을 어느 정도 잡아오기도 한다. 이런 음악 감각이 빛을 발한 대표적인 특집이 박명수의 어떤가요 편. 비록 초보 작곡가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긴 했지만 박명수의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음악에 있어서 진짜 프로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영입된 뒤로는 길에 밀려서 딱히 부각되지 않는 편.
- 억지 기부 천사 박명수 : 말 그대로 주로 내기에서 져서 자신의 돈으로 다른 사람들(주로 시청자들)에게 기부한다. 물론 억지로. 덕분에 본인은 좋은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X씨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아버님 : 최연장자라서 생긴 빙. 무한도전 내에서 힘이 유난히 약한 캐릭터이기도 한데, 박명수가 나이에 비해 작은 체격은 아니지만 동년배인 정준하는 거구의 괴력을 자랑하고 유재석은 운동 마니아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나머지 멤버들과는 나이차가 꽤 난다. 악역을 맡아 다른 멤버들을 괴롭히다가도 젊고 팔팔한데다 힘 좋은 멤버들에게 밀려 바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인지라 그럴때마다 "아버님..."이라며 자막으로 측은해 하는 장면이 나온다.
- 의심왕 : 이상하다 싶으면 "야 이거 몰카냐?" 할 정도로 의심이 많다. 멤버들 사이에서는 항상 불신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언급될 정도. 덕분에 '석연찮은'이란 별명도 있다. 다만 예전에 몰카를 했다가 들키자 자신감에 날 속이면 **300(만원)** 줄게란 말을 했다가 무한도전 200회 특집에서 제대로 당한 적이 있기는 하다. 깜짝카메라에서도 속기는 했지만 이미 이상한 껌새를 느끼고 있어서 귀신으로 분장한 맹승지한테 놀라지 않았다.
- 무슨 게임을 하든 제일 먼저하는 고유명수 기믹이 있다. 유재석이 "맨 먼저 박명수 씨."하면서 박명수에게 먼저 시키는게 고유명사화가 된 것. 만날 힘든 것을 먼저 하고 다른 멤버들은 도망가버리거나 '네~ 역시 이 게임은 안되겠네요~' 라며 능청을 떨면서 골탕을 먹기도 하고, 게스트한테 호통치다가도 곧잘 비굴해지는 등등 막말하고 의심많은 캐릭터로 보이지만, 실은 매우 소시민스럽고 현실에 있을 법한 약골 아저씨다. 그래서 이 양반이 호통을 쳐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 깨방정, 스포일러 : 입이 심하게 가볍다. 일명 '무한도전 최측근'. 무한도전 방영분에 등장하는 가명인 "최측근"은 백이면 백 박명수다. 그래서 법 관련 특집에서도 한번 디스당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2010년 7월 31일 자신과 제작진만 알고 있는 어느 사실을 두시의 데이트에서 스포일러를 했다. 그 후 돌아온 것은 무도 팬들의 비난과 공연무대의 텅 빈 객석 또한 해당 방영분이 나간 후 오랜만에 게시판 지분도 독차지했다. 그 이후로는 깨방정을 되도록 자제하고 있는 중이라기 보단 하필 2012년 초부터 무한도전이 파업 크리로 촬영이 중단이 되었다.
- 극한의 이기주의 : 물론 무한도전 자체가 무한이기주의라 불릴 만큼 멤버들 전원이 이기주의가 심한 편인데, 박명수는 그게 너무 지독해서 이기주의가 발휘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훌륭히 발휘되어 결국 그로 인해 방송 전체를 맡아먹는 민폐급으로 발전한다는 게 문제이다. 자기만 이득을 보겠다고 다른 멤버들을 위기에 몰아넣고 수수방관 하는 정도는 약과고 심하면 기울파손도 일삼는다. 무한도전 좀비 특집 28년 후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되어 특집을 맡아먹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나중에 그걸 간소하게나마 리메이크한 무한도전 200회 특집 내 코너 '인도 여자 좀비 특집'²⁰에서는 중간에 당해 좀비가 되었는데 인간처럼 멀쩡히 말하고 걷고 달리는 심각한 룰 브레이킹을 선보여 지탄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으로 은근히 룰에 무관심하거나 아예 룰을 무시하는 경향이 크다. 룰에 대해서 멤버들이 알려주거나 지적하면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를 무시에 대한 자기정당화를 하거나 아니면 어버버거리다가 제풀에 버럭거리는건 흔한 패턴 중 하나.

- 깨스박, 가스박명수, (가스)할명수, 방귀차: 장이 안좋은지 방송도중 가스 누출사고가 일어나면 열에 아홉은 박명수다. 멤버들이 일단 냄새가 나면 거의 무조건 박명수를 의심할 정도다.
- 요술공주 명수: 웃겨야 산다 특집에서 생겼지만 무도 초창기와 중반까지 귀요미 기믹과 동생들에게 우쭈쭈 당해주는 탱커 기질을 대변하는 별명이다.
- 한 머리 두 냄새: 박명수가 탈모가 심했을 때에 머리를 다 감으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뒤통수만 감았다고 한다. 이를 정준하가 림으로 만들어서 생긴 별명이다.
- 풀컨박, 조커박: 박명수의 를 이해력과 상황 판단력이 꾸준하지 않고 기복이 심해서 붙은 별명이다. 박명수가 풀 컨디션이면 게임이나 상황극을 쥐고 훈드는 데에 반해 어버버한 경우에는 스스로 망가짐으로써 예상 밖의 웃음을 준다. 박명수가 큰 활약을 하면 풀 컨디션 박 씨 (풀컨박)라는 별명이 언급되고 어이없이 탈락하면 조커박이라고 불리는게 바로 그렇다.

연애 특징

1. 시작과 호감 표현

- 밀당을 싫어하며,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게 확실함.
- 상대방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움직임.
- 말재주가 없어서 애정 표현이 서툴지만,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줌.

2. 연락과 소통

- 의미 없는 "뭐해?" 식의 카톡보다는 용건 위주의 대화를 선호함.
- 카톡 답장이 느리거나 단답형이어도 악의가 없는 경우가 많음 (단순히 할 말이 없는 것).
- 감정적인 공감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사랑을 표현함.

3. 개인 공간과 자유

- 연애 중에도 '혼자만의 시간'과 '자기 계발/취미' 시간이 필수임.
- 상대방이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려 하면 큰 답답함을 느낌.
-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상호 독립적 연애'를 지향함.

4. 갈등 관리

- 싸울 때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논리적인 이유와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함.
- 화가 나면 말수가 적어지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함 (억지로 대화를 강요하면 역효과).
- 뒤끝이 없으며, 한 번 해결된 문제는 다시 꺼내지 않음.

5. 데이트 스타일

- 주로 활동적인 데이트(스포츠, 게임, 맛집 탐방 등)를 즐김.
- 가식적인 이벤트나 오글거리는 분위기보다는 담백하고 편안한 만남을 선호함.
- 계획적인 데이트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유연함을 가짐.

6. 이별과 정리

-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아주 냉정하고 빠르게 정리함.
- 이별 후 후련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미련을 오래 갖지 않는 편임.

- 유재석

무한도전의 메인MC 포지션으로, 명수와 준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확고부동한 리더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구잡이로 날뛰는 멤버들의 다툼을 중재하고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진행, 통솔하는 역할로 통한다.

박명수의 말에 따르면 "유재석은 상황을 보고 나는 그의 눈치를 본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무리 게스트가 많다 해도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를 끌어들이며 띄워주는 특유의 진행도 무한도전에서 제일 빛을 발하고 있는 듯 하다. 이 점이 가장 크게 드러난 편들이 하나같이 게스트가 드글드글한 특집들이다. 일단 대표적으로 올림픽대로 뉴엣가요제,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자유로 가요제,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못진소1 못진소2, 쓸친소 페스티벌 등이다. 우글우글 몰려 있는 게스트들과 그 개성 강한 무도 멤버들을 모두 통솔하며 띄워주는 그 진행 능력을 보고 있으면 왜 그가 1류 MC인지를 알 수 있다. 존재감이 위낙 압도적이라 유재석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촬영장에 도착해있지 않을 경우 나머지 멤버들은 진행이나 개그 등 움직임을 생각도 없이 데굴먹한 채 그저 유재석이 빨리 와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20] 무한도전 우천 시 취소 특집에서도 도착하는 멤버들마다 불안한 눈빛으로 유재석이 왜 오지 않는 거냐며 빨리 오라고 문만 쳐다보며 침묵하고 있었고, 심지어 길은 "홍철이는 재석이형 와야지 얘기해요!"라고 하기도 했다. 그 말 많은 노홍철이! 소지섭 리턴즈 특집에서도 유재석이 벌칙으로 풀에 빠져 잠시 자리를 비우자 멤버들이 순간 얼음이 되어 정적이 흐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천 시 취소 특집에서는 비로 인해 갑자기 예정되어 있던 추격전이 취소되어 스태프와 출연진 할 것 없이 우왕좌왕하자 그 자리에서 혼자 발 벗고 나서서 즉흥적으로 컨셉을 짜내어 재미있는 특집을 만들어내는 등 즉석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에서도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무한도전 각종 특집에서 사실상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을 이끌고 있다.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프로그램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멤버들 몰래 준비하는 프로젝트나 특집이 있으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지만 정말 굵직한 것은 이따금 유재석에게 미리 말해준다고 김태호 PD가 밝힌 바 있다. 절준하나 박명수에게 이야기해주면 연기하는 티가 다 나서 말 안해준다고 한다. 반면 유재석에게 말해놓으면 유재석이 PD가 원하는 대로 방송 프로그램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본래는 진행을 하는 포지션이라 다른 멤버들이 티키타카 상황극을 할 때 주로 '자자 박명수씨 고만하세요', '(크흐흐흡) 홍철아 고만해! 고만해!' 식으로 말리는 '척'을 하면서 판을 더 키우는 역할이지만^[21], 만약 꽁트를 하거나 각자 따로 떨어져서 웃음을 만드는 포맷같이 본인이 진행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깐족대면서 딜을 넣는 것 또한 수준급이다. 애초에 무한도전 이전 강호동의 천생연분, 공포의 쿵쿵따 등 유재석이 메인 MC급 예능인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본래 포지션은 남에게 쉴 새 없이 깐족대면서 웃음을 만드는 '뻔질이', 즉 마치 지금의 노홍철과도 같은 포지션이었으니 잘할 수밖에... MC를 전문으로 하면서 그 기억이 쓸 데가 딱히 없었던 것 뿐 원래는 뻔질이 캐릭터가 맞다. 유재석이 각 잡고 깐족거리기 시작하면 하하와 홍철마저도 치를 떤다. 무한도전 숏자야구 특집 때 '꺄아암~짝~!! 놀라더라!!' 하면서 본격적으로 깐족대자 YB팀이 약 올라서 날뛰었다. 사실 유재석도 코미디언 출신으로서 전면에 나서서 웃길 수 있지만, 무한도전처럼 진행이 어려운 대신에 어떻게든 이끌고 진행할 수만 있으면 알아서 멤버들이 빽빽 터뜨려주는 경우에는 굳이 나서기보다 조율하면서 하와 수 등의 기믹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무도 내에서의 천적은 딱히 없다. 모든 멤버와 궁합이 맞는다. 정확히는 상대에 따라 유재석이 순수 나서서 맞춰준다. 게스트가 오건, 누가 오건, 심지어 평범한 소시민들과의 일상 대화조차 방송 분량으로 만들어 버린다. 2인자급인 박명수나 정형돈 정도가 가끔 딴죽을 걸 때도 있지만, 1인자이자 진행 마스터인 그의 능력을 알기에 장난스레 까면서도 거의 알아서 긴다. 특히 박명수의 경우 유재석을 질투하는 기믹을 밀며 틈만 나면 '내가 너 꼭 무너뜨리고 만다'라고 하고, 심지어 없애고 싶은 존재라고 하자 바로 유재석이라 답하는 등 디스를 자주 하지만 누구보다 친하고 유재석의 말에 가장 잘 동조하는 편이다. 유재석이 워 1등했다 치면 '직장에서 부족한 게 없고, 이를 걸 다 이뤄서 워든 잘 풀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디스하면서도 막상 다른 멤버들이 유재석을 깨면 "닥쳐! 얘가 뭘 잘못했다고 얘한테 난리야!"라며 제일 먼저 실드쳐준다. 다른 멤버들은 안 챙겨주면서 유독 재석에게만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 원성을 사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얘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 드립을 치며 아부하는 직장인 기믹으로 개그를 치곤 한다. 하하는 무한재석교 신도로서 아예 추앙하며 떠받드는 수준이고 홍철 역시 마찬가지.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서는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처음 봤을 때 갖고 싶다고 생각했다' 등등 중증의 무한재석교 광신도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홍철과 비교할 때마다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

이렇듯 멤버들에게는 각종 아부와 찬양, 동시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다. 캐릭터나 별명 제조기라서 멤버들이 왜 나는 별명 안 만들어주냐, 신경 써달라고 서로서로 유재석의 관심을 얻으려는 모습은 무한도전의 일상적인 모습 중 하나. 전반적으로 무도 멤버 내에서 무슨 일이 터지거나 의견을 내고 싶으면 무조건 유재석에게 알려주고 본다. 멤버들 간의 자리싸움이나 암투도 치열하여 일조권(유재석의 호응)을 얻지 못한 멤버들이 명당자리인 박명수의 유재석 바로 옆자리를 탐내 자리 분양 특집이 기획되기도 했다. 인기와 지지도도 압도적인 편이라 멤버들에게 질투를 받는다. 특히 인기투표 같은 거 하자 하면 '인기빨로 하면 볼 것도 없이 너지!'라고 멤버들에게 반발을 산다. [무한도전 미남이시네요](#) 특집에서 역시 시민 투표 부문 1위에 재석이 오빠 멋있다는 무한재석교 초등학생 신도들의 지지로 하하의 초통령 기믹을 빼어오기도 했다. 흡쇼핑 특집에서 가장 빨리 매진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으며, 미남이시네요 특집에서도 압도적인 인기를 과시하며 시내에서 촬영을 할 때면 시민들에게 납치를 당하기도 한다. 2015년 즈음부터는 이걸 아예 기믹화해서 제작진이 노골적으로 찬양하면 멤버들은 질투하고 재석 본인은 민망해하거나 능청떠는 반응으로 웃음을 뽑아내고 있다.

연애 특징

1. 연애 시작: "천천히 스며드는 사랑"

- 신중한 탐색: 첫눈에 반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상대에게 마음을 엿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짹사랑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거절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하는 것에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하기보다는 상대가 다가와 주길 바라는 편입니다.
- 낮은 진입장벽, 높은 문턱: 사람들에게 친절해서 친해지기는 쉽지만, 진심으로 연인이 되기까지는 내면의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2. 표현 방식: "말보다 깊은 다정함"

- 행동파 로맨티스트: "사랑해"라는 말보다 상대가 지나가듯 했던 말을 기억해 선물을 사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쟁겨주는 등 세심한 배려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 리액션 봇: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잘 들어줍니다. 연인에게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주는 데 탁월합니다.
- 애정 확인: 자신이 사랑을 주는 만큼 상대방에게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3. 관계의 태도: "갈등 회피와 배려"

- 평화주의자: 싸우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해서 불만이 있어도 꾹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터지면 이별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 상대에게 맞춤: 데이트 메뉴나 장소를 정할 때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정 장애라기보다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 섬세한 유리심장: 연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를 잘 내지 않아 상대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개인 공간: "집순이/집돌이의 자유"

- 에너지 충전 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도 혼자 누워 있거나 멍하게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연락이 안 된다면 그냥 쉬고 있는 것입니다.
- 구속 혐오: ISTP와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를 통제하려 하거나 내 가치관을 바꾸려 하면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멀어집니다.
- 자연스러운 만남: 계획에 얹매인 데이트보다 발길 달는 대로 가는 여유로운 데이트를 선호합니다.

5. 이별과 정리: "참다가 한 번에 끝"

- **인내심의 한계:** 오랫동안 참고 맞춰주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면 미련 없이 관계를 끊습니다.
- **잠수 이별 주의:** 갈등을 마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회피하거나 잠수를 타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후유증:** 이별 직후에는 아주 힘들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혼자만의 평온한 일상에 빠르게 적응하기도 합니다.

- 노홍철

무한도전의 극딜러 포지션. 축구로 치면 득점을 내는 투톱 스트라이커였다. 명실상부한 무한도전 웃음 지분의 에이스로서, 무한도전 애청자들은 물론이고, 무한도전에 대해 몰랐다가 뒤늦게 유튜브 등으로 접한 시청자들 또한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유머 지분에서는 독보적인 멤버였다. 강렬하면서도 수많은 캐릭터성, 고점도 높지만 평소에도 평균치는 꾸준히 유지해주는 높은 저점, 어떤 멤버와도 어색함 없이 케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적인 유연함까지, 그야말로 출연했던 기간 동안 활약을 안 했던 적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유머 쪽에서는 명실상부한 에이스였다. 오죽하면 김태호PD가 그를 두고 무한도전에서 유재석만큼이나 영향력이 크다고까지 했으니, 유재석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말그대로 무한도전의 색채를 만들어내는 양 기둥이었다.

물론 다른 멤버들도 무한도전 역사 동안 꾸준히 웃음을 만들어냈지만, 유머 지분에서는 노홍철만큼은 되지 않는다는게 중론이다. 유재석은 스스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노홍철보다도 뛰어남에도^[9] 1인자이자 진행자의 위치로 인해 직접 나서기가 힘들었고, 박명수는 한땐 노홍철과 더불은 웃음 지분의 원투펀치였으나 반드시 유재석이 서포팅해줘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다 나이와 건강으로 인해 점점 활약상이 줄어들어갔으며, 정형돈은 미존개오로 포텐이 터진 이후론 노홍철에 버금가는 웃음 지분을 만들어냈으나 멘탈이 약해 단독 에이스 역할을 맡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며^[10] 정준하의 경우 소심하고 마음씨가 약해 상황이 잘 풀려 흐름을 탈때는 에이스급 활약을 하지만 상황이 안풀릴때는 병풍, 심할때는 장애물이 될 정도로 능력의 편차가 심했으며, 하하는 서포팅 능력은 탁월하나 자신이 중심이 되기엔 역량이 부족했고, 길은 뒤늦게 포텐셜이 터졌으나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전성기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다. 다른 멤버들이 웃음 쪽에서는 이런저런 아쉬움이 있는 상황에서 꾸준히 무한도전의 재미 지분을 끌어올려준 멤버는 다름아닌 노홍철이라 봐도 무방하다.

사기꾼 캐릭터

현란한 언변을 바탕으로 붙은 별명. 돌아이 컨셉과 완전히 부합되는 것 뿐만 아니라 노홍철의 광기도 제대로 보여준다. 하하의 공익근무로 인한 공백기에 추격전이 도입되며 부각된 별명인데, 사실 무한도전 이전으로 가면 [만원의 행복](#)에서 돈은 없고 배는 고픈 상황에 닥치자 남이 먹다 남긴 피자 빵쪼가리를 화려한 언변을 이용해 신제품으로 속여 다른 음식이랑 교환한 전적이 있다.

이미 무모한 도전 시기에 1화 황소와 줄다리기편부터 훈련벌칙으로 유재석과 표영호가 골대를 찍고 오는동안 "저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라면서 진행 안하고 자리에 앉아있으려고 했으나 아직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면서 실패하기도 했었고 모기향 vs 인간 편에 나온 훈련 중 손바닥으로 종을 치는 파트에서, 충격흡수용 돌을 양면테이프로 붙이고 원손에 낀 상태로 쳤다가 직후 유재석으로 발각된 적이 있는 등, 초창기때부터 사기꾼 기질이 보였다. 이때 정형돈 曰 "아기스포츠단에서 사기도 가르치나?". 거꾸로 말해요 아하에서 늘 했던 앙케트 때(블랙데이 특집) 신입사원 면접을 잘 볼 것 같은 멤버로 노홍철이 뽑히지 않은 이유 중 "사기꾼 인상이다."가 있었다. 이에 노홍철은 멘붕했다.

이 사기꾼 기질이 극한까지 발휘된 것이 [무한도전 PD특공대](#) 특집에서 본인이 만든 위인 노홍철. 자신을 [베토벤](#), [고흐](#), [아인슈타인](#) 등과 동급으로 높는 것부터 시작해 주변 지인들이 타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 버리고 없는 업적도 창조해 냈다. 특히 자신의 얼굴이 작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을 케이블에 출연하게 해준 은인과도 같은 최승준 [SBS](#) 부장(전 CJ ENM PD)의 얼굴을 키워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게 암권이었다. [고벨스](#) 빼치는 자기 선전과 사기의 끝을 보여줬다. 결국 가을 전어를 다룬 [정형돈](#)을 제치고 단독으로 본사에 경위서를 작성하게 됐다.^[11] 이때 그가 MBC 아카이브 자료화면, 본인의 과거 영상과 기획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있는 자료로만 [교묘하게 편집한 스킬](#)은 방송가에서 레전드급으로 남아있다.

2009년 여성의 날 특집에서는 [소녀시대](#) 멤버들을 자유자재로 농락했다. 자꾸 집적대는 노홍철을 떼어내버릴 요량으로 '머리 검은 남자가 좋아요'라고 한 발언에 영색이 안 된 머리 뿌리 부분을 드러내 보인다든지...

2011년 4월 방영된 [무한도전 편의 전쟁](#)에선 현란한 말솜씨로 만 원을 16만 원으로 불리는 엄청난 장사 수완을 보여줬다. 또한 하와이 특집에서는 상어우리에 들어간 나머지 멤버들의 상황을 영어로 왜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 세드 모아 앤 모아 타임 데이 원 보너스 타임~~

[명수는 12살](#) 3탄에선 어릴 때부터 타고난 사기꾼임을 증명했다. 말없이 반성하는 척하며 선생님에게 신뢰를 받거나, 영망인 성적표를 받고 난 뒤 자책하고 화내는 모습을 연기해 되레 어머니에게 위로받는 장면 재연이 압권이다.

무엇보다 이 사기꾼 캐릭터가 돋보인 특집은 바로 [초격전 특집](#). 이하는 그 예시들이다.

- 무한도전 초격전의 서막인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에선 [박명수](#)와 치밀한 두뇌 싸움을 벌이면서 신&구 악마 콤비란 수식어를 얻었고, 절대 서로 배신은 하지 말자고 자신의 입으로 말하면서 배신의 기회를 계속 노렸으며 냉면집에서 서로 눈치를 보다가 가방을 들고 튀는 명장면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초격전 끝자락에 박명수가 숨긴 돈가방을 역추적해 막판 우승. 이때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던 박명수는 정문 앞을 지키고 서있었는데, 그를 뚫기 위해 돈가방을 획득하고도 옷에 맙아서 숨기는 등의 기지를 발휘했다.
- [여드름 브레이크](#)에선 멤버들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아 돈을 획득하진 못했지만 특유의 사기는 여전했다. 정준하의 옷에 슬쩍 [GPS](#)기를 넣어 형사팀의 표적으로 만들거나, 가진 것 하나 없이도 형사팀을 이용해 돈가방에 접근하는 등의 활약을 했다. 햄버거 가게 안에 있는 박명수를 발견하고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주문을 해두거나, 형사 팀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달라며 깐죽거리는 모습도 백미.
- [꼬리잡기 특집](#)에선 포텐셜 폭발. 시작부터 [보이스 피싱](#)을 통해 정형돈과 전진을 낚아 정보를 얻고 정준하를 최단 시간에 잡아내더니^[33] 난적 유재석(+길, 박명수)도 잡았다. 막판 오리지널 꼬리잡기 게임 끝에 정형돈에게 우승을 내줬지만, 이는 90% 이상 이긴 게임에 반칙이 섞여들어간 데다^[34] 멤버들끼리 서로 옷을 벗기고 난리치는 바람에 진 것이다.
- [의상한 형제 특집](#)에선 정준하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2개 받으며 위기에 몰렸지만, 배신과 순발력을 활용해 길과 공정거래 뉴오를 결성하면서 멤버들의 쓰레기 봉투를 모두 모아 정준하에게 봉투 6개를 몰아줘 버린다. 데드라인인 새벽 3시가 끝난 뒤 유재석과의 통화에서 노홍철이 쓰레기봉투를 죄다 모아 정준하에게 버렸다고 전하자 유재석마저 박장대소했다.
- [미드나잇 서바이벌 in 서울](#)에서도 신들린 사기 행각을 보였다. 동맹을 맺은 정준하를 방패막이로 삼아 멤버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총이 고장나서 안 나온다고 사기를 치며^[35] 결국 정준하를 막판에 배신하며 우승했다.
- [무한도전 갱스 오브 서울](#)에서는 대결 시작 전부터 [정형돈](#)이 저 팀과 우리 팀의 차이점은 노홍철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하거나 유재석이 노갈량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등 팀원들에게 에이스 대접을 받았으며 그 대접이 무색하지 않게 대결에서 스티커 사기를 통해 정준하를 아웃시키고^[36], [빅뱅](#)팀 전원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빅뱅 팀의 역습에 당해서 아웃. 하지만 빅뱅팀 전원을 패닉으로 빠뜨리고 뿌리채 훈들었을 정도로 임팩트가 꽤 컸다. 역대 무한도전 에피소드 중 노홍철의 사기와 심리전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난 편 중 하나. 다만 이 특집은 제작진의 개입 논란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후반에 빅뱅팀이 어떻게 노홍철의 계략을 확인했는지였을 정도.^[37]
- [별주부전 특집](#)에서는 정형돈에게 간을 빼앗기지만 방심한 틈을 타 간을 탈환하며 결국 끝까지 생존했다.

이처럼 항상 최상위권 수준의 활약을 보이며 노갈량, 사기의 신이라고 불렸던 노홍철이 2011년에 드디어 대굴욕을 겪게 되는데, [정총무가 쓴다](#) 편에서 혼자 [회전초밥](#)을 약 87만 원 어치를 계산하는 영광을 얻었고, [무한도전 TV전쟁](#)에선 [하하&정준하](#) 연합의 덫에 걸리며 멤버들 중 가장 먼저 아웃됐다. 그것도 노홍철의 사기 **VVIP** 고객이던 정준하에게. 하하가 덫을 쳤음을 눈치채고 영리하게 택시를 타서 접근했지만, 정준하를 지나치게 알본 것이 패인. 택시는 왼쪽 문이 안 열린다는 사실도 간과했다.^[38] 이 때 정준하는 "너 초격전 약빨 다 됐으니 [런닝맨](#) 게스트 나갔다 와"라고 놀렸다.^[39] 덤으로 하하가 "앤 오자마자 감옥가요." 라고 추가타를 날려 완전히 KO.

이듬해 [무한도전 말하는대로](#)에선 간만에 사기꾼다운 활약을 했다. 멤버들의 집중공세에 온 몸의 털들을 모두 제모 당할 위기에 놓였음에도 "이 미션은 노홍철을 제외한 다른 멤버들이 수행한다"는 말을 조커

항복에 써붙여 무적 방어 카드를 만들어 벌칙을 피했다. 근데 하하의 음모로 정형돈의 벌칙에 만리장성으로 향하게 됐지만, 이건 뭐 노홍철이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다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사기꾼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선한 역할을 맡아도 멤버들이 믿어주질 않는 부작용도 생긴다. 대표적인 예가 무한도전 해님달님. 착한 호랑이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앞뒤가 너무 잘 맞는 그의 행동을 사기로 간주한 헛님달님에게 결국 곶감으로 죽음을 맞는 비극을 맞았다.

무한도전 뱀파이어 헌터에선 음침한 분위기 탓에 내내 공포에 떨다가 평소라면 예상했을 법한 유재석과 정형돈의 뱀파이어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물렸다.^{[40][41]} 다만 물려서 뱀파이어가 된 이후로는 상황파악이 완전히 되면서 오히려 말빨로 정형돈을 미끼로 삼아 그를 희생시키고 자신은 살아남는 등 후반부에는 간만에 사기꾼 기질이 다시 살아났다. 다만 이편에선 하하의 방해공작으로 아쉽게도 우승은 실패.

2013년 하반기에 방송된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2 100빡빡이의 습격에서도 초반부 멤버들이 신뢰하지 않는 걸 알고 오히려 이를 역이용, 제일 기대치가 떨어지는 길에게 '존재감 없는 형에게 내가 협업하면 비중이 커질 수 있다'며 낚았고 길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 선뜻 응했다. 하지만 노홍철을 다 믿진 않는 듯 형돈이에게 걸려온 정보전화를 중간에 스피커를 끄고 혼자 듣는 등 경계했다. 이 방송에서 박명수의 무지막지한 활약으로 존재감이 미미했지만, 우승을 쟁취하며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 1의 재림이 됐다.^[42] 관상 특집 후반부인 왕좌의 게임에선 천민 계급의 광대가 됐는데, 초반부에는 같은 상황극 악자 길과 같이 콩트만 하다가 산으로 빠지는 식의 진행을 보여주다가 중반부에서 하하와의 추격전 이후 정형돈을 잡음으로써 아직 추격전 세포는 안 죽었다는 것을 입증했다. 마지막에는 천민 출신에서 양반까지 올라갔지만 안타깝게도 왕이었던 준하의 가드에 막혀서 양반에 만족해야 했다. 상단의 돌+아이와 사기꾼 캐릭터 때문에 노홍철이 실제로도 예의없고 양심한 인물이라는 오해를 초반에 많이 샀는데, 초창기 멤버들과 노홍철도 이를 알고 방송 중 멤버들이 "홍철이는 실제로는 굉장히 예의바르다"라고 종종 언급했다.^[43] 김수로 특집에서 김수로의 역몰카로 김수로가 화를 내고 촬영장을 나가자 크게 당황해 김수로가 몰카임을 밝힌 후에 평평 울기도 했다.

그리고 2008년 한 정신질환자에게 폭행당했을 때, 반격하지 않고 끝까지 침착하게 말로 타이르다가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데려갈 때도 끝까지 옆에서 타이르는 모습이 나왔고, 뉴스 인터뷰에는 방송과는 전혀 다른 진중한 목소리로 임해 완전히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44] 이후 방송에서 자신이 갈비를 다친 것까지 소재로 이용해 힘든 일을 회피하려는 컨셉으로 쓰이거나, 박명수의 "넌 좀 맞아야 돼."라는 발언에 "맞을 만큼 맞았는데요, 형님?"이라고 반격하는 용도로까지 잘 써먹었다.

돌+아이 캐릭터뿐만 아니라 가장 더럽게 살 것 같은 연예인 1위로 뽑힌 적이 있을 정도로 대외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빨간 하이힐의 비밀 특집 당시 공개된 노홍철의 생활 습관이 이 모든 이미지를 뒤집어버리기도 했다. 본인도 실제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방송용 이미지 때문에 나오는 좋지 않은 반응에 괴로워하기도 했고, 무한도전 300회 특집에선 실제와 이미지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며 고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사실, 2008년 초반까지는 오히려 돌아이 컨셉을 훨씬 밀고, 순수한 면도 많이 보여주었다. 네 멋대로 해라에서는 돈가스 사준다며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힌 엄마에 대한 서러움으로 인해 평평 우는 장면이 최면을 통해 나왔고, 소녀팬들이 병원으로 따라왔다며 하니까 바로 웃는 모습이 정말 순수했다. 김수로 특집에서도 이중 몰카를 통해 김수로를 화나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 눈물을 조금 흘리다가 몰카인걸 알자 정말 평평 울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노홍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돌+아이와 함께 반드시 꼽히는 두 가지 캐릭터 중 하나로 남아있다.

연애 특징

1. 시작과 호감: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

- 풍부한 상상력: 상대방의 작은 친절에도 '나중에 결혼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할 정도로 금방 몰입합니다.
- 적극적인 표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눈빛과 행동에서 다 티가 납니다. 먼저 다가가 대화를 걸고, 상대방의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입니다.
- 금방 식기도 함(금사식): 열정이 뜨거운 만큼, 상대방에게 실망하거나 본인의 이상향과 다르다는 걸 느끼면 마음이 차갑게 식기도 합니다.

2. 연애 스타일: "너는 내 세상의 주인공"

- **리액션과 공감의 끝판왕:** 연인의 사소한 이야기에도 "진짜?", "대박!"이라며 최고의 반응을 해줍니다.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 **이벤트와 서프라이즈:** 연인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거나 특별한 데이트 코스를 짜는 것을 즐깁니다. 상대가 감동하는 모습에서 큰 행복을 느낍니다.
- **현신적인 태도:** 본인의 에너지와 시간을 연인에게 아낌없이 쏟아붓는 편입니다.

3. 소통과 감정: "거짓 없는 솔직함"

- **감정 표현에 솔직함:**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너무 좋아", "행복해"라고 자주 말해줍니다.
- **상처도 잘 받음:** 연인의 무심한 반응이나 비판적인 한마디에 크게 위축되고 밤새 고민하기도 하는 여린 면이 있습니다.
- **끊임없는 대화:** 연인과 깊은 대화, 가치관 공유, 시시콜콜한 일상 나누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4. 단점 및 주의할 점: "구속은 싫지만 관심은 필요해"

- **반복되는 일상 거부:** 매번 똑같은 데이트는 지루해합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 **변덕스러운 에너지:** 갑자기 텐션이 확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감성적으로 변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옆에서 육육히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 **현실적인 문제 간과:** 감정이 앞서다 보니 돈 관리나 계획적인 미래 설계 등 현실적인 부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5. 이별: "후회 없이 사랑했기에"

- **이별 직후 폭풍 슬픔:** 세상이 무너진 듯 슬퍼하고 주변에 하소연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의외로 깔끔하게 털고 일어납니다.
- **미련보다 새로운 시작:** 워낙 새로운 사람과 세상에 호기심이 많아,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나가는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 정형돈

평상시 무한도전 내 역할은 서포터로, 프로그램의 웃음 포인트를 잡아내는 역할. 하하와 비슷하게 중원에서 골을 배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유재석과 함께 그가 없으면 무한도전의 재미가 절반으로 줄어들 정도로 배후에서 지원사격 역할을 맡고 있는 멤버. 그러다가도 진상 한 번 부리기 시작하면 미친 존재감으로 큰 웃음을 자아내니, 볼 배급 능력과 함께 필요할 때는 '큰 거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멤버. 2002년경에 [KBS 개그콘서트](#) 리즈시절에 당당히 공채로 합격했고 본인이 주연으로 출연한 히트 코너까지 있을 정도로 연기력도 뛰어나다.

한편 박명수가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천상 개그맨 외길인생이다 보니 진행 능력은 떨어진다고 평가받는데, 정형돈은 유재석 다음으로 진행 능력이 좋다고 평가받는다. 유재석 또한 TAXI 출연 당시 본인이 없다면 무한도전은 누가 진행하게 되겠냐는 질문에 정형돈을 꼽았는데, 이 때는 심지어 정형돈이 한창 버라이어티에서 부침을 겪던 2008년의 발언이었다.

정리해 보면 그 산만한 멤버들을 이끌고 메인 MC가 가능한 유이한 멤버이면서 연기력, 프로그램 전체를 조율하고 구성하는 능력, 꼭 필요한 순간에 터지는 한 방(간족과 진상)까지, 공수전환이 가능한 리틀 유재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거기에 유재석과는 서로를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를 일으키는 캐릭터였다.

의외로 두뇌를 잘 써야 하는 특집에서 안 그럴 것 같은데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분야에선 아예 대놓고 게임 이해도가 제일 떨어지는 박명수와 정준하가 있어 좀 묻히는데다가, 일단 정형돈 본인은 게임 규칙 자체는 정확히 이해할 줄 아니 부각되지는 않지만, 두뇌플레이에 너무 약해 상대에게 자기 패를

내보인다거나 잘 가다가 뒷마무리가 부족해 망하는 경향이 많다.^[6] TV 전쟁 특집에서 박명수를 노릴 때 타겟이 그 박명수라는 이유만으로 앞뒤 안재고 무조건 닥돌했다가 박명수에게 자기 패를 들키고 나중에서야 자기가 진짜 노려야 할 사람이 허약한 명수가 아닌 튼튼한 달명 감독^[7]임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거나, 뱀파이어 헌터 특집에서 불필요하게 자신을 노출시켜 헌터에게 들킨데다가 변명을 너무 못해 아웃을 당했고^[8], 마이너리티 리포트 특집에서도 똑같이 멤버들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예측을 쓴 하하는 블러핑을 잘 해 중박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같은 상황의 정형돈은 블러핑을 너무 못해 자기 예측을 거의 다 대놓고 공개해서 예측 0개 적중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얻었다.^[9] 특과 백 특집은 이러한 면이 극명히 드러나는 특집이였는데 자기팀이 어떻게 움직일지만 생각할 뿐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고, 누가 봐도 게임에서 불리한 자기팀을 무리하게 상대팀과 맞붙게 계속 시켜서 팀의 패배를 자초했다. 관상 특집도 체력이 달려서 망한 경우도 있었지만 머리를 좀 더 썼더라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순간들도 여럿 있었기에 이런 점이 더 부각되어 보인다. 그것을 보여주듯 관상 특집에선 왕으로 시작해 천민, 심지어 그 이하인 노비로 떨어지는 등 멤버들 가운데서 독보적으로 신분이 폭락하며 가장 파격적인 하향세를 겪었다. 머리싸움과 각종 수법에서 항상 밀려나기만 했던 끝까지 간다에서도 시작부터 끝까지 다른 멤버들에게 심리전과 힘겨루기 모두 참패를 거듭했고^[10], 10번째 상자까지 개봉된 시점에서야 다른 멤버들과 함께 펼친 집요함으로 분전했지만 결국 상금 획득에 실패, 뒤에서 1등으로 추격전을 마무리했으며 멤버 5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빚을 졌다. 이로 인해서 무도 추격전 약체 중 하나로 꼽힌다.

다면 그런 정형돈도 활약한 추격전 특집이 일부 있는데 대표적으로 꼬리잡기 특집. 이 특집은 정형돈이 위낙 게임 이해도 자체는 높은 편이기에 멤버들 중에선 게임 룰을 빠르게 이해를 했으며 이 특집땐 말 그대로 최상의 컨디션이었기에 체력도 문제가 전혀 없었다.^[11] 이 때문에 멤버들을 차례차례 잡다가 최후엔 노홍철과 접전을 벌인 끝에 결국 승리하게 된다.^[12] 그 외에도 미드나잇 서바이벌, 숫자야구, 공동경비구역 등에서도 좋은 활약상을 보여주었으며, 저질 체력으로 인한 핸디캡을 특유의 상식인 포지션, 높은 게임 이해도와 지능으로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분량을 뽑아냈다.^[13] 결과적으로 정형돈은 기본적으로 추격전 기량은 꽤나 좋은 편에 속하고 신체 능력도 상술했듯이 상위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심리전에 부족한 모습과 원래부터 약점이었던 저질 체력,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부터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강 상태 등이 발목을 잡아 추격전 최약체로 추락하게 되었다.^[14] 과거 정신감정 특집 때 분석도 이런 평가를 뒷받침하는데, 당시 '이해력은 멤버 중 가장 높은데 나머진 다 떨어진다', '멤버들 중에 가장 핵심을 못 본다'고 분석되었다. 당시 멤버들은 그냥 "녹화에 집중 못하고 딴 생각을 많이 한다"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설계하는 데 한계가 크다'라는 의미로 누구보다 몰입은 잘하지만 결과를 얻어가는 데 필요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의 성향이 추격전에서 가장 드러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개콘 도레미 트리오 출신이다 보니 음악 개그 쪽은 무도 내에서도 넘사벽. 무도 특성상 음악 개그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음악 개그를 선보일 때마다 레전드급 웃음을 터뜨려준다. 진지한 음악 도전이 아니라 음악 개그로 나서면 같이 하는 타 멤버들을 그냥 압도해버릴 정도다.

주간 아이돌 등의 활동으로 무도 멤버들을 통틀어 최강의 아이돌 인맥을 구축하면서, 무도 내에서도 인맥을 활용하는 장면이 늘어나고 있다.^[15] 다만 이에 대해 상당수의 무도 팬들은 영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 김성규, 서은광 같이 게스트로 나왔는데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렇다.

여담으로 유재석과 더불어 무한도전의 나름 상식인 포지션을 맡고 있다. 기본 상식 자체는 유재석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받지만 창의력을 요하는 추리 문제에 한해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 125화 디자인 특집 창의력 퀴즈에서 다른 멤버들이 감도 잡지 못한 4문제를 훈자서 다 풀어버렸고 숫자야구 특집에서도 전 멤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상대팀의 정답을 추리해 냈으며 2015년에 방영된 바보전쟁 특집에서도 이러한 능력을 증명했다.

다만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아 무한도전 공식 유리몸이기도 하다. 박명수나 정준하도 종종 부상이나 병마로 고생을 하긴 했지만^[16], 정형돈만큼 자주 걸리지는 않았다. 정형돈은 녹화도중 자주 이탈했다 복귀하기도 했고 입이 짙고 정크푸드를 즐기는 식생활과 무한도전 방영 중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안 좋은 생활습관, 정신적인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정형돈은 극도의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결국 부담감을 못 이기고 무한도전을 그만두었다.

정형돈이 무언가를 하면 갑자기 비가 내릴 때가 있어서, 무한도전 초기에 의도치 않은 편집점이 만들어졌다. 이 기믹은 정형돈이 본격적으로 품을 끌어올리기 시작한 2009년 이후로는 쓰이지 않다가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서 오랜만에 비몰이 기믹이 발동했다.

무한도전의 딜서폿 포지션. 평상시에는 개그를 치기 쉽도록 포인트를 잡아주고 거기에 한마디 얹는 식으로 개그를 치지만, 후술할 빽돈 상태가 되면 인정사정없이 물어뜯거나 그냥 상황만으로 웃기기도 한다.

극과 극인 정형돈과 G-DRAGON의 만남은 지드래곤의 일방적인 형돈 바라기스러운 면모 덕에 순조롭게 진행된다. 패션에서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며 [16] G-DRAGON을 만나기 위해 YG엔터테인먼트 본사에 도착했다. 형돈이와 대준이 음악을 통해 정형돈의 힙합 가능성에 매료되었던 지드래곤은 인사부터 포옹같은 거 싫어하니 하지 말라고 까이고 왜 마이를 입었냐, 목에 깁스한 거냐며 연예인이면 좀 관리하고 살아라며 패션으로 디스당한다. 다른 팅들은 자리에 앉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부터 시작하는데 비해 이 쪽은 자리에 앉아있을 새도 없이 형돈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 바람에 지드래곤은 그를 YG 구내식당(...)으로 데려가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여 바로 이동한다. 이 와중에도 형돈은 자기 밥 먹는 거 구경하라며 거드름을 피우고 지드래곤은 자지러진다(...).
지드래곤은 보기만 하는 가운데 훌륭한 식사를 하면서 정형돈은 여러 반찬과 목사발이 제공된 YG 구내식당의 식단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평소 YG 구내식당을 이용해보고 싶어했던 하하에게 YG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다고 자랑을 했다(...). 전화를 끊고 정형돈은 자신에게 가사 컨셉이 많다고 자랑하며 지드래곤 너에게는 결정권이 없고 내가 다 정할 거라고 미존개오다운 위엄을 선보이지만 지드래곤은 2년 전 박명수 때와는 다르게 정형돈의 행동 하나하나에 매료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에 반해 정형돈은 지드래곤에게 전화번호를 7자리만 가르쳐주려 하고 전화하지 말고 문자로 하고 제발 질척거리지 말라며 퉁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이 와중에 깨알같은 주군의 태양 패러디 자막에 리브라인 OST(윤미래의 Touch Love)까지 깔린다. 개그콘서트의 도구도구 BGM은 담. 한편 정형돈은 형돈이와 대준이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작사한 노래 중 까인 가사 셋을 가져와서 지드래곤에게 보여주었고 지드래곤은 이중에서 '해볼라고'에 큰 관심을 보였다. 노래는 작곡 G-Dragon-작사 정형돈(일부 G-Dragon 보정) 체제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팀명은 '형돈'과 '지용'을 적당히 섞은 형용돈종.

연애 특징

1. 시작과 호감: "관심이 생기면 일단 분석합니다"

- **지적 매력에 끌림:** 외모도 보지만, 대화가 잘 통하거나 배울 점이 있는 사람에게 강한 호감을 느낍니다.
- **관찰 모드:** 누군가 좋아지면 다가가기보다 멀리서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분석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를 연구하다 혼자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 **먼저 다가오길 기다림:**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다가가야 효율적일지' 고민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표현 방식: "말보다 팩트, 감정보다 정보"

- **담백한 애정 표현:** 간지러운 말이나 빈말을 정말 못 합니다. "사랑해"라는 말 대신 "이거 너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샀어"라며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합니다.
- **리액션의 어려움:** 상대의 고민에 대해 "정말 힘들었겠다"는 위로보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라는 논리적인 해결책을 먼저 제시합니다. (악의는 없지만 가끔 서운함을 유발함)
- **연락 귀찮음:** 사랑과 별개로 매 순간 카톡을 주고받는 것을 에너지 낭비라고 느낍니다. 용건 없는 대화가 길어지면 익씹이나 안익씹을 하기도 합니다.

3. 관계의 태도: "독립성과 사생활의 절대적 존중"

- **개인 공간 사수:** '내 사람'이 되더라도 나만의 동굴(취미, 공부, 게임 등)에 들어가는 시간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 **간섭 혐오:**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같은 사소한 통제를 싫어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삶을 사는 연애를 추구합니다.

- 가식 없는 관계: 연인 앞에서는 사회적 가면을 벗고 가장 솔직한(때로는 너무 날것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4. 갈등 해결: "감정 싸움은 시간 낭비"

- 논리적 토론: 싸울 때 울거나 소리 지르는 감정 호소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왜 화가 났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라고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 사과도 논리적으로: "미안해" 한마디보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앞으로 이렇게 고치겠다"는 분석적인 사과를 합니다.
- 납득이 안 되면 평행선: 본인이 생각하기에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면 절대 굽히지 않는 고집이 있습니다.

5. INTP가 사랑에 깊이 빠졌을 때

- 자신의 세계 공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자신의 기발한 생각, 잡지식, 상상들을 연인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 호기심의 대상: 당신의 일상을 궁금해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직접 공부해서 대화의 수준을 맞추려 노력합니다.
- 희귀한 협신: 귀찮음이 삶의 모토인 INTP가 당신을 위해 멀리 이동하거나, 당신의 취미를 함께해준다면 그것은 엄청난 사랑의 신호입니다.

- 정준하

무한도전을 넘어 대한민국 예능 역사상 최강의 [탱커](#). 무한도전의 상황극의 절반 이상은 다른 멤버들이 정준하를 공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재석은 잘 안 풀리면 일단 정준하 샌드백을 치고 시작하고, 잘 풀려도 클라이막스를 위해 치는 수준.[④](#) 프로레슬링에서 기술을 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접수하는 사람도 중요하듯이, 정준하는 무한도전에서 정말 '찰지게' 얻어맞는다. 맞는 것도 능력이라고 친다면 사실상 무한도전 방영 내내 존재감을 발휘한 주연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멘트로 공격 당하는 것 뿐만이 아닌 실제로 맞아서 웃기는 실력도 일품. 뺨 맞으면 반응을 제일 잘 해주는 게 정준하이며 특히 나는 액션배우다 편에서는 스턴트맨들에게 당근으로 실컷 얻어맞으며 레전드 장면을 찍어냈다.

공격당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기지만, 특히 공격당하는 순간 나오는 반응이 가히 어떻게 받아줘야 웃긴지 잘 알고 취하는 액션이다. 물론 결혼 전엔 진짜로 빠져서 화를 내는 게 대부분이었지만[⑤](#) 결혼 후엔 예능용 리액션을 제대로 탑재했다.[⑥](#) 웬수 하하는 그를 2016년 예능부자로 만들어 주었고, 새롭게 합류한 양세형과 친한 관계여서 3명이서 꽤나 재밌는 상황을 연출해낸다.

또한 위의 인용문에서 정형돈이 언급했듯, 유재석과 함께 무한도전 꽁트를 이끌어나가는 양대 촉이었다. 무한도전 유일의 정극 연기자 출신인 점을 살려 다른 멤버들 대비 준수한 연기력을 통해 꽁트를 이끌어나간다. 박명수나 나이 어린 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꽁트 능력치가 떨어지는 점이 있는데, 그 구멍을 충실히 메우고도 남을 정도의 캐리력을 보여준다. 꽁트를 위해 '가발을 쓴 정준하'는 여러 멤버별 치트키(뿔테안경 박명수, 진상부리는 정형돈 등) 가운데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송에서 시도때도 없이 가장 많이 [해골](#)을 먹는 해골마크 최다 적립 멤버. 다른 멤버에 비해 놀림받는 상황도 잠고 평소에 욕 먹을 만한 행동을 많이 해서인 것도 있지만 제작진이 정준하 안티인지 [유재석](#), [하하](#) 같이 무결점 혹은 공격 타입의 멤버들은 사소한 굴욕거리나 별 거 아닌 디스를 당해도 해골먹을 확률이 반반이지만 정준하만큼은 이런 거에 가차없이 해골을 먹는다. 심지어는 쿠즈 틀렸다고 해골먹는 수준이니 제작진이 유독 정준하한테만 해골을 많이 날렸다. 지못미 특집에서는 역대 해골 최대치인 [무한대\(∞\) 해골](#)을 먹은 바 있다.[⑦](#) 과거 네이버들이 정리한 무한도전 멤버들의 해골 순위표([2008년 1월 기준](#), [2011년 7월 기준](#))에도 정준하가 해골순위 1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무한대를 먹은 시점에서 그 누가 와도 이길 수 없지만...

무한도전이 종영된 뒤에는 이런 샌드백으로서 모습이 재평가되어 무한도전 클립들이나 짤들이 올라올 때, 한국 예능에서 이만한 샌드백은 없다면서 정준하를 그리워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예능계에선 거의 독보적이라 할 정도의 수준인데 체감이 안된다면 현재 무도가 종영된 뒤에도 방영되고 있는 런닝맨에서

탱커 역할을 맡았던 이광수, 지석진 등이 당시 정준하의 캐릭터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마저도 당시 무도의 수위를 생각하면 저 둘도 정준하에 비하면 거의 새발의 피 수준이다.

반면 탱커라고 해서 가만히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따금씩 반격하기도 하는데, 특히 박명수의 공격에는 얹어맞는 능력만큼 찰지게 받아친다. 박명수도 동생들의 공격을 웃기게 잘 받아주는 편이라 이 [두 명은 결국 서로를 공격하면 웃기다는 게 확인됐고, 그래서 결국 싸워서 웃기는 구도](#)가 나왔다.^[8]

식신 컨셉

처음부터 쭉 밀었던 컨셉. 0.1t이라는 별명도 여기서 유래했다. 초창기인 무모한 도전 시절 '60초 세기 특집'에서 게스트로 출연했다가 중간 게임으로 나왔던 '갓 꽂여낸 뜨거운 우동을 1분 내로 먹는 게임'에서 그 우동을 아주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단 13초안에 원샷으로 면은 물론 국물까지 끝냈다! 더군다나 첫 번째 시도는 적당히 조절한거고 두 번째 도전에서는 제대로 도전했는데 12초를 기록해 깨버렸다.

덕분에 현재까지 정준하를 상징하는 대표적 캐릭터 중 하나인『식신(食神)』이 탄생했다. 이때의 정준하 관련 자막과 지금의 정준하 관련 자막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식신이란 그 별명답게 무서울 정도의 스피드와 양으로 어떤 음식이건 순식간에 해치운다. 50회 특집에서 유일하게 50 미션을 성공하며 식신으로서의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당시 도전과제는 잔치국수 50그릇 먹기. 뷔페용의 작은 그릇이라고 해도 50그릇이나 되기에 그 수가 결코 적지 않다.^[9] 강호동도 한 수 접을 정도. 모 케이블 채널의 연예 프로그램에서 언급하길, 강호동은 단순히 많이 먹기만 하지만, 정준하는 많이 먹으면서도 또 빨리 먹는다라고. 무릎팍도사에서 강호동과 먹기 대결을 벌여 말 그대로 압승하면서 제대로 증명했다.^[10]

바보형

말그대로 정준하가 바보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나오는 말이다. 이 캐릭터도 [노브레이인 서바이버](#) 때부터 내려오는 유구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격 특집에서는 멤버들, 제작진, 시청자 모두 인정하는 무도 최약체. 단순한 힘과 스피드는 자타가 공인하는 에이스급이라 문제가 없지만 워낙 상황판단이나 게임이해를 잘 못하고 심리전에 이리저리 휘둘리기 때문이다.^[11]

이하 그 사례들.

-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에서는 가짜 돈을 보고 착각해서^[12] 대전까지 도망갈 뻔하다가 헛걸음 하고 돌아온다.^[13] 그 뒤에도 멤버들에게 수차례 아무지게 놀락당하며 마지막까지 돈가방은 구경도 못한다.
- [여드름 브레이크](#) 특집에서는 웬일로 돈가방을 박명수와 동시에 가장 먼저 찾아내는 활약을 보이긴 등 가장 앞서나간 멤버였지만, 차이나타운에서 빽빽이파에 돈을 빼앗겨 버렸다. 하지만 속아서 그대로 식당 밖으로 가짜 돈을 가지고 나가버린 박명수와는 달리 정준하는 꽤나 지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길의 트릭^[14]을 눈치채고 식당 안에서 도망가는 박명수를 완벽히 속이기 위한 약간의 놀란 연기만 보여준 뒤 혼자 남은 길을 힘으로 찍어누르고 가져간다는 작전을 실행했으나^[15] 빽빽이파 일원들이 숨어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해 결국 당했다.
- [꼬리잡기 특집](#)에서는 잡아야 할 유재석한테는 대놓고 타겟을 순순히 밝히질 않나, 자기를 쫓는 노홍철에게 순식간에 꼬리를 빼앗기고 종 신세로 전락했었다. 하지만 노홍철에게 잡힌 후로도 유재석을 집요하게 쫓으며^[16] 단순한 부하 이상의 분량을 확보하긴 했다.^[17]
- [무한도전 의상한 형제](#) 특집에서는 노홍철에게 회심의 사기를 성공, 쓰레기봉투 2개를 몰아주지만 결국 노홍철에게 역습을 당하며 쓰레기 봉투 6개로 되돌려 받는다.
- [하하복귀 특집 예능의 신](#)에서는 노홍철의 "내가 있는 곳은 여기!"라는 말 장난을 듣고 지하철 역에 노홍철이 있다고 판단, 헛걸음을 했다.
- [미드나잇 서바이벌](#) 특집에서는 길, 정형돈 등을 아웃시키는 등 나름대로 활약을 하며 최후의 2인까지 살아남지만 막판에 눈치없이 자기가 우승한 줄 알고 좋아하다가 사실 살아있던 노홍철에게 저격당하며 아웃당했다.
- [무한도전 갱스 오브 서울](#) 특집에서는 아예 멤버들이 대놓고 빅뱅파로 보내버렸다. 이후 노홍철의 스티커 사기에 낚여 첫 탈락자가 된다.
- [별주부전](#) 특집에서는 거북팀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열심히 뛰어다닌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불일을 보려다가 그만 다 잡은 길을 놓치고, 코앞에 있는 간 달린 유재석을 제대로 뒤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보내는 등 역시 삽질했다. 거기다가 방송 끝까지 월 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런데 [무한도전 정신감정 특집](#)에서 밝혀진 바로는 생각외로 멤버들 중 지능 수치는 제일 높다. 상식 면에서는 박명수에게 밀리긴 했으나 여전히 상위권이다. 그러나 30년 외길 바보인생에 상기한 자폭이 너무 많아 그다지 부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멤버들 중 지능지수는 높은 편이지만 상황판단력이 가장 낮다고 나왔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읽어야 하는 추격전에서 최약체인 게 우연이 아닌 셈이다. 그래도 [TV전쟁](#)에서는 항상 노홍철의 충신이 되던 그간의 추격전에서와는 달리 하하와 연합해 사상 최초로 노홍철을 아웃시켜버리는 기염을 토했다. 심지어 노홍철은 가장 먼저 아웃당한 것이었다. 다만 노홍철을 잡은 뒤 바로 다음 타겟인 하하는 안 노리고 계속 멍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아 사실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 하하가 노홍철에게 속아주는 척하면서 유인했고, 정준하가 노홍철의 뒤를 쳤던 돌격 타이밍도 하하가 시켜서 한 것이었으니, 사실상 하하가 떠먹여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물론 노홍철의 완력을 이길 사람이 유재석 아니면 정준하 뿐이었으므로 택시의 문이 안 열렸던 호재를 감안해도 정준하가 오랜만에 활약한 건 사실이다.

[무한도전 술래잡기](#) 특집에선 평소 추격전 약체의 모습과는 다르게 끝까지 살아남아 활약을 펼쳤는데 이 특집은 를 자체가 술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멤버가 술래가 되고 그 술래를 찾아 잡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룰이었던 데다 술래잡기를 시작하기 전에 얻은 무기가 바로 GPS인 만큼 술래가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보 획득엔 있어서 가장 독보적으로 높았기에 술래를 여러 번 잡으면서 술래들의 아이템까지 짹슬이 해나가 그야말로 이 특집에선 보기 드물게 최강자가 되었다. 하지만 최강자가 된 거 하곤 별개로 라운드가 7라운드까지 있었는데 마지막 라운드에서 유재석이 스스로 자처해 술래가 되어서 시간을 1/2로 줄일 수 있는 찬스+변장이라는 술래에 있어서 유재석은 유리한 위치였고 유재석이 이를 적절히 활용해 정준하는 아쉽게도 우승을 놓친다. [\[19\]](#)[\[20\]](#)[\[21\]](#)

2013년 [무한도전 관상 특집](#)에서는 최초로 단독 우승의 영예를 누렸다. 물론 해당 특집이 무도 특유의 두뇌싸움이 아니라 단순한 피지컬 싸움에 가깝긴 했지만, 결승에서 천적 노홍철을 꺾고 우승했다는 게 기념비적인 일이다. [\[22\]](#)[\[23\]](#)

심지어 2014년 선택 2014에 출마했을 때도 배정받은 기호는 바였다.

추가적으로 정준하가 바보형 캐릭터를 잡은 데는 특유의 바보톤 발성도 한 몫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목소리 자체로 웃기는 게 가능한 사람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탐정 특집의 '웃지마 민병관'. 다른 멤버들이 나레이션 스태프의 이름을 맞히라고 하자 온갖 이름을 다 대면서 웃기려고 하는데, 여기서 정준하 혼자서만 '웃지마 민병관! 김순찬이! 변민석이! 야 상태야!' 등등 내뱉는 것마다 터트렸다

무도 내에서의 주요 천적은 [박명수](#)와 [노홍철](#). 박명수와는 성격과 개그 스타일 자체가 상극이라 방송 내에서 여러 번 티격태격 상황극을 만들어내고, 노홍철과는 예전 주식 투자 손해건 [\[58\]](#) 때문에 완전히 잡혀 있고 특히 추격전에서는 맨날 당한다. 그러나 이런 천적들과 엇이면서 빽빽 터지는 빅재미와 상황극을 만들어내니 그야말로 아이러니... 하지만 2013년 이후로는 예능감이 부쩍 상승하여 주 천적 ~~이자 영혼의 콤비~~인 박명수를 되려 공격하는 등 천적 관계가 뒤바뀌었다. 이제는 박명수가 정준하에게 해골을 많이 먹히는 상황. [\[59\]](#) 노홍철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앙금도 풀리고 때로 서로 디스하기도 하면서 많이 친해진 모습을 보인다. [\[60\]](#)

하하와는 2010년대 들어서 많이 엮이기 시작했다. 제일 덩치 차이가 심한 둘인 만큼 비쥬얼적으로도 크게 눈에 띄며 의외의 케미를 선보여서 뱀파이어 특집 때 결성된 미미시스터즈 [\[61\]](#)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가 많다. 특히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2 100빡빡이의 습격](#)에선 추격전 내용으로는 밀바닥에 가까웠지만 방송 분량에선 바보형 제로 최상급의 활약을 선보였다.

[전진](#)이 무한도전 내에서 많이 의지했던 멤버로 보인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특집에서, 정준하가 전진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줬으며, 무한도전 영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벌떡벌떡 일어나주기 바래'에서도 정준하가 전진을 끌고 나갔다. 이후 정신감정 특집에서 전진과 정준하가 비슷한 결과가 나오자 정형돈이 '맨날 그래서 새벽에 들이서 술 먹자고 하잖아.'라고 말하며, 방송에서도 서로 짹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길](#)과도 접점이 매우 많다. 길은 김연아 특집때 정준하의 대타로 첫 출연했으며 그 이후로도 정준하를 따르면서 예능스승으로 삼다시피했다. MBC의 장기파업이 끝난 무한도전 쉼표 특집에선 텐트에서 길에게 예전의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진지한 상담을 해줬고, 그러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길의 예능감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엔 정준하의 오른팔의 기믹도 수행하면서 비슷한 관계인 유재석-하하와 대립구도를 세우거나 하하급의 충성도는 못따라가겠다며 감탄하는 등의 캐릭터도 구사했다.

우천시 취소 특집에서 박명수와 함께 불장난 댄스로 맹활약하여 큰 웃음을 선사했다. 적절히 치고 빠지는 능력 등 전반적인 예능감도 살아났고, 박명수와의 콤비플레이도 활성화된 듯, 예전처럼 어중간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둘이 붙으면 확실하게 빵빵 터트린다.

덩치에 맞게 주로 받는 역할을 소화한다. 까임받으면서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스타일. 이 때문에 이런 상황 외에는 조금 무딘 모습을 보이며, 주도는 잘 못한다. 항상 누군가가 무언가 시작해야 그제서야 움직이는, 거의 종적 역할을 맡는다. 이 때문에 정준하를 잘 못 까는 스타일과 호흡이 잘 안 맞는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멤버들이 어택커로 진화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하지만 예능감이 부쩍 늘은 2013년부터는 본인도 어택커 기질을 발휘하고 있다. 주 대상은 위에서도 언급했듯 박명수. 명수에게 공격을 그냥 당해도, 반격해도 빵 터트리는 기가 막힌 조합을 자랑한다.

연애 특징

1. 시작과 호감: "사랑은 운명처럼, 표현은 불도저처럼"

- 금사빠 기질: 첫눈에 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호감이 생기면 숨기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분위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 적극적인 대시: "네가 좋아!"라고 온몸으로 티를 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보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을 표현하는 즐거움이 더 큩니다.
- 지루함은 NO: 연애 시작 단계의 설렘과 짜릿함을 즐기기 때문에 썸 타는 단계에서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입니다.

2. 소통과 애정 표현: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칭찬 감옥"

- 리액션 끝판왕: 연인의 사소한 변화를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오늘 머리 너무 예쁘다", "이 옷 너랑 찰떡이야" 같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 스킨십과 표현: 말보다는 행동, 스킨십,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육체적인 친밀함도 선호합니다.
- 깜짝 이벤트: 정준하 님이 멤버들을 쟁기듯, 연인을 위해 맛집을 예약하거나 선물을 준비하며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에서 본인의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3. 관계의 태도: "너랑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해"

- 최고의 즐거움 추구: 데이트할 때 "재미"가 1순위입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기보다 밖에서 활동적인 데이트를 즐기는 '프로 밖순이/밖돌이'가 많습니다.
- 엄청난 공감 능력: 상대방의 감정에 순식간에 동화됩니다. 연인이 슬프면 같이 울어주고, 기쁘면 본인이 더 날뛰며 좋아해 줍니다.
- 갈등 회피와 서운함: 싸울 때 논리적으로 따지기보다 감정적인 서운함을 먼저 느낍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며 눈물을 보이거나 빼치는 모습이 정준하 님의 '탱커'적 면모와 비슷합니다.

4. 주의할 점: "자유를 주되 관심은 멈추지 마"

- 금방 식을 위험: 열정이 뜨거운 만큼, 연애가 일상이 되고 지루해지면 마음이 급격히 식을 수 있습니다. 늘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 구속은 싫지만 소외는 더 싫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구속하는 건 싫어하지만, 단체 모임이나 대화에서 본인이 소외되는 건 견디지 못합니다.
- 충동적인 성향: 계획적인 미래 설계보다는 '지금 당장의 행복'에 집중하다 보니 돈 관리나 진지한 미래 계획에서 연인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5. 이별: "후회 없이 태우고 쿨하게(?) 안녕"

- 최선을 다한 뒤 미련 없이: 연애하는 동안 본인의 에너지를 다 쓸어붓기 때문에, 끝났을 때는 의외로 뒤통수를 치는 편입니다.
- 주변의 위로: 워낙 친구가 많고 외향적이라 이별 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며 슬픔을 빠르게 극복하려 노력합니다.

- 하하

김태호 PD가 언급하길 무한도전의 미드필더, 불쏘시개 포지션. 훈히 말하는 서포터 역할이다. 유재석이 리드를 하면서 전체적인 틀을 잡고, 정준하가 공격을 받으면서 탱커 역할을 하고, 박명수/노홍철 등이 비난으로 직접적인 딜을 넣으며, 길은 그 상황에서 뜯어없는 얘기를 하며 분위기를 전환시키면, 하하는 정형돈과 함께 전체적인 골 배급과 자잘한 서브 딜을 맡는다. 꼬맹이 기믹을 살린 막말로 서브딜링을 하면서도, 다른 멤버들이 지나가듯 흘린 개드립도 크게 리액션해줘서 원래는 편집될만한 상황도 다시 살려내던 화타였다.¹¹

미드필더인지라 직접적으로 딜을 넣는 노홍철이나 박명수등에 비해 하하의 활약상은 별로 부각이 안 되는 면도 있다. 가끔은 10년탱커 정준하나 서브탱커 정형돈보다도 더 존재감이 부족할 때도 있다. 그래서 각종 특집에서 꼴찌한 적도 별로 없고, 1등한 적도 별로 없는 중간쯤의 인물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이다. 대표적인 예로 젊어서 체력이 좋고 다리도 빠르지만 추격전 성적은 늘 중간이었고, 가수 출신이라 노래를 잘할 것 같지만 가요제에서도 늘 중간쯤의 활약을 보였다.

그래서 임팩트는 작아보일 수 있으나, 결코 없어서는 안되는 인물로 평가된다. 하하를 저평가하는 것은 마치 골을 못넣으니 미드필드나 수비수는 전부 빼자고 하는 말과도 같다. 특히 촬영장 분위기를 유지시켜주는데에 하하의 리액션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박명수 역시 유재석과 함께 가장 눈치를 많이 보는게 리액션 담당인 하하였다. 개그를 쳤는데 둘의 반응이 안좋으면 이건 진짜 아닌가보네 하고 즉각 포기하는 수준.

입대 이전과 소집해제 이후의 스타일이 다른 편인데, 입대 이전에는 박명수와 함께 무도 메인 어태커였다. 당시 서브 4명중에서 하하만큼의 예능감과 존재감을 확립한 인물도 없었다. 떼쓰는 꼬마&폭로전문 하기자 캐릭터로 다른 멤버들을 공격하며 호불호도 갈렸지만 뜻을 해냈다.

그러나 소집해제 이후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는데, 우선 같이 콤비플레이하던 친구는 입대 이후 돌+아이 캐릭터와 사기꾼 캐릭터를 단단히 구축해 무한도전 에이스로 떠올랐고, 허구한날 시청자 게시판에서 까이던 정형돈과 정준하 역시 하하의 소집해제 직후즈음 있던 특집인 WM7 특집과 시크릿 바캉스 특집을 계기로 포텐을 터뜨리며 새로운 어태커로 등극하던 시기였다. 거기다가 2년간의 공백으로 본인의 품 역시 떨어졌다는 악재가 겹쳤다. 무엇보다 그가 하차한 2008년의 무한도전과 장기프로젝트를 마구 진행하고 모두가 어느 정도 웃음지분을 챙기는 2010년의 무한도전은 매우 달랐다. 하차 이전 캐릭터인 꼬마&무식한 캐릭터를 애매하게 밀고가다 이도저도 아닌 처지가 되어버린 것은 덤.

그렇게 1년여 간을 해매던 도중 무한상사 특집을 통해 '노홍철과 비교당하는' 캐릭터가 구축된 이후 점점 자신감을 얻으며 다른 멤버들을 서포트해주는 방식으로 무한도전에 녹아들었다. 실제로 정준하의 드립력이 가장 빛나던 2013~14년 시기에 가장 호응해주고 맞받아쳐주던 인물이 하하였다. 하하의 최대 강점은 모든 멤버와 케미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맞는다는 점. 신처럼 받들거나, 하극상을 벌인다거나, 형님으로 받들면서도 은근슬쩍 기어오르거나, 무식대결을 한다거나, 갈굼받다가 결혼과 못친소 이후 급격히 상황이 반전되거나, 상대를 끌어올리면서 케미도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부각되는 일은 별로 없는 편이다.

추격전에 늦게 입문했지만 런닝맨 속성과외를 통해 추격전에서 헤메거나 초반에 탈락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를 이해도가 상당히 좋고, 몸싸움은 좋지 않지만 젊은만큼 체력이 좋고 다리도 빨라서, 일정수준 이상의 신체조건을 가져 언제나 일정수준의 분량을 확보하고 중상위권으로 활약하는 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머리를 쓰기보다는 편법을 쓰는 모습을 보여 비판의 대상이 된다. 노홍철처럼 환상적인 언변으로 상대를 훌리거나, 박명수처럼 를의 허점을 파고드는 의외성이 아닌, 시청자가 봐도 의아해할 를 위반으로 비판받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오로지 본인의 눈에만 의존한 박명수와는 달리 지미집 맵핵을 사용하고도 져서 비난폭격을 받은 공동경비구역 편이 있다.

단점으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기 이전이던 이후던 간에 혼자서 웃음을 뽑아내는 능력은 다른 멤버들에 비해 아래라는 점. 실제로 하하가 혼자서 웃음을 뽑았다고 할만한 장면은 유재석TV 행쇼나 무한도전 짹꽃 정도를 제외하고는 크게 없다.¹¹ 그래도 다른 에이스들이 있던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서포트해주면 됐기에 괜찮았지만 길과 노홍철, 정형돈이 연달아 빠진 이후 본인에게 부담이 가중되자

단점이 두드러졌다. 본인이 웃음을 주도했던 2016~17년경에는 [히트다 히트](#), [박보검나웃겨](#) 같은 [런닝맨](#)에서도 안 쓰일 [억지 밍](#)을 미는 모습을 보이며 비판이 쏟아졌고, 대놓고 본인이 프로그램을 짠 [무도의 밤](#) 특집 때 멤버들 중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

하하로써는 정형돈-노홍철이 빠진 후 무리수를 둔 셈이고 이게 오히려 악화를 불러 일으켰던 것. 사실상 빠진 멤버의 공백을 어떻게든 메워보려다 평가가 떨어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공인 [4.5인체제](#)에서 다른 멤버들이 해왔던 대로 하는데 비해, 무도의 흐름에 의외성과 돌발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멤버. 런닝맨에서의 모사꾼 포지션을 가져와 정준하를 2016년 예능 부자로 만들어준 장본인. 게스트와 하는 에피스드에서도 적절한 드립으로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아, 유재석에게서 자리를 (센터로) 옮겨 앉아라.는 칭찬 뿐만 아니라, 토토가2 잭스키스편에서 유재석과 같이 개근하는 등 현 무한도전에서 유재석의 리드 없이도 믿을만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캐릭터. [웨딩 싱어즈](#) 중간 경연에서는 유재석의 순서에 [임시MC](#)를 맡았다.

- 상꼬맹이, 꼬마 : 멤버 중 최단신이라 붙은 별명. 이 별명은 옆 동네 [런닝맨](#)에서도 '하로로'라는 기억으로 그대로 계승된다. 덧붙여 [무한뉴스](#)에서의 무한단신 발언으로 인해 단신 꼬마로 이미지가 완전히 굳어졌다. 덕분에 [네가 하면 나도 한다](#) 명대사가 우스꽝스러운 느낌으로 듣보였다.
- 간신배, [무한재석교](#) : 유재석을 찬양하면서 옆에 바짝 붙어다녀서 붙은 별명. 무한재석교의 창시자이다. 소집해제 이후 한동안 상황이 역전되어서 유재석 공격에 앞장선 적이 있었지만 이내 [무한재석교](#)로 돌아와서 아부와 간증에 열심이다. 길은 2013년 빙고 특집 당시 한 10년은 아부해야 이 정도로 하겠다며 감탄하기도 했다.^[16]
- 레게 : 레게를 시도때도 없이 불러서 붙은 별명. 애초에 고음을 부르면 첫소리가 나는 실력이라 하하가 부르는 모든 노래는 레게식이 된다. '새~' 등의 특유의 추임새가 특징. 덕분에 무한도전 내에서 비유되는 국적은 [자메이카](#). [나름 가수다](#)에서는 아예 레게 복장을 하고 나온 적이 있다. 심지어 이게 그냥 컨셉이 아닌 건지 나름 가수다에서는 1세대 레게 가수 [스컬](#)과 친분이 있을 정도였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 무식, 백치 : 일명 하하([下下](#)). 단순히 상식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방학 특집 당시 받아쓰기 100점 만점 중 20점을 얻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후 50회 특집에서도 똑같은 20점을 받고, 그 외에도 잊을만 하면 터지는 각종 부실한 어휘선택 능력을 보고 있자면^[17] 캐릭터인지 실제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 사실 유재석을 제외한 다른 멤버들도 백치끼가 있긴 있지만, 하하는 유독 상식적 실수가 잦은 탓에 무한도전에서 '백치'하면 하하를 떠올릴 정도로 하하의 주요 아이덴티티가 되어버렸다. 2013년 빙고특집 당시 마가렛 대처를 몰라 마가린 데친거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백미였다. 특이하게도 실제로는 [대진대학교](#)에서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았었음을 생각해보면 괴리가 굉장히 심하다.^{[18][19]} 다만, 하하는 고등학생 때 방황하다가 막간에 6개월 정도 연기학원을 다닌 것을 바탕으로 연극영화과에 들어간 것이기에, 상식이 모자란 듯한 모습도 이상하진 않다. 이후로도 100회, 200회, 300회가 넘어서도 백치 캐릭터가 여전하고, [런닝맨](#) 같은 다른 프로에서도 역시 백치 캐릭터를 선보이는 것을 보면 정말 원가 있을 수도 있다.^[20] 그래서인지 가끔은 석사(碩士)가 아니라 석사(石士)로 불리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반어법](#)적인 의미에서 석사라고 불러주기도 한다. 바보 전쟁 특집에서, "이 세상에 바보는 없다. 각자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를 뿐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상식이 부족할 뿐이지 절대적인 지식 소양이 부족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눈치도 빠르고 순발력도 좋아 두뇌회전 능력은 꽤나 좋은 편. 덕분에 원전 남자다잉 특집에선 총명한데 배움이 없는 것이라는 최고의 진단을 받았다.
- [하이브리드 샘이솟아 리오레이비](#) : 항복 참조.
- 하모니 : 여장시 불는 이름.
- 꽃미남 : 무한도전 초창기 존재했던 캐릭터. 잘생긴 하하 등으로 불렸었다. 얼마 가지 못하고 이 캐릭터는 사라졌다.

연애 특징

1. 시작과 호감: "금방 사랑에 빠지는 불꽃놀이"

- 금사빠 끝판왕: 상대의 작은 매력(목소리, 눈빛, 나를 챙겨주는 행동 등) 하나만 보고도 이미 머릿속으로는 손주 이름까지 다 지어놓는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 불도저식 대시: 밀당을 정말 못 합니다. 좋으면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연락도 쉬지 않고 하며, 상대방의 모든 일상에 관심을 보입니다.
- 운명론자: "이건 운명이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우리 만남의 모든 우연을 특별한 의미로 해석합니다.

2. 연애 스타일: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서포터"

- 최강의 리액션 파트너: 하하 님이 멤버들의 드립을 살려내듯, 연인이 무슨 말을 해도 "우와 진짜?", "대박이다!"라며 최고의 반응을 해줍니다. 연인의 자존감을 하늘 끝까지 높여주는 존재입니다.
- 케미 요정: 상대방이 누구든 그 성향에 맞춰줍니다. 무뚝뚝한 사람에겐 재롱둥이가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겐 든든한 위로자가 되어주는 카멜레온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
- 이벤트 장인: 기념일이 아니어도 "너 생각나서 샀어"라며 선물을 건네거나, 깜짝 여행을 계획하는 등 일상을 축제로 만듭니다.

3. 소통과 감정: "솔직함과 유리심장 사이"

- 감정 과잉과 투명함: 기분 좋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지만, 서운할 때는 표정에서 다티가 납니다.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연인에게 다 털어놓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 인정 욕구: 하하 님이 유재석 님의 칭찬 한마디에 춤추듯, ENFP도 연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네가 최고야"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서운함이 녹아내립니다.
- 깊은 대화 선호: 가벼운 농담도 좋지만, 깊게 인생, 철학,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나누는 대화를 통해 사랑을 확신합니다.

4. 단점 및 주의할 점: "구속은 질색, 하지만 소외는 공포"

- 금방 식는 열정(금사식): 에너지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연애가 지루한 일상이 되거나 상대방이 너무 수동적이면 흥미를 잃고 마음이 급격히 식기도 합니다.
- 결정 장애와 무계획: 데이트할 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이 주도해서 계획을 짜는 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영혼: 친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연인이 과하게 통제하거나 구속하려고 하면 숨 막혀 하며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5. 이별: "후회 없는 사랑과 폭풍 눈물"

- 이별의 고통: 헤어지면 세상이 무너진 듯 슬퍼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잡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 빠른 회복: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면 어느 순간 갑자기 털고 일어납니다. 새로운 흥미로운 일이나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다시 밝아지는 회복 탄력성이 좋습니다.